

학교 문법의 구개음화 동화주에 대한 기술 문제

이 동 석(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차 례 >

- I. 서론
- II. 구개음화의 동화주에 대한 교과서 설명
- III. 반모음 ‘ㄹ’의 동화주 여부 판단
- IV. 결론

I. 서론

마지막 국정 교과서인 7차 문법 교과서는 구개음화 현상을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ㄹ’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선행천장소리 ‘ㅈ, ㅊ’이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구개음화 현상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는 ‘ㅣ’나 반모음 ‘ㄹ’이고, 피동화주는 ‘ㄷ, ㅌ’이다. 또한 형태론적인 조건은 ‘ㅣ’나 반모음 ‘ㄹ’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의 조건 중에서 피동화주나 형태론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지만, 동화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화주가 반모음 ‘ㄹ’인 경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된 학교 문법의 내용 중 반모음 ‘ㄹ’을 동화주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반모음 ‘ㄹ’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기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옳을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구개음화의 동화주에 대한 교과서 설명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와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음운 변동을 다룬다. 중학교 국어 과목에서는 음운 변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올바른 발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을 다루더라도 규범의 차원에서 다룰 뿐 음운 변동으로서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와 『언어와 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교과서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¹⁾.

1) 논저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이용하여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사와 출판 연도를 이용하여 지칭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본고도 이를 따른다. 다만 한 출판사가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여러 종 출판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대표 저자명을 밝힌다.

<표 1> 고등학교 『국어』의 구개음화 동화주와 예시

교과서	동화주	예시
교학사(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곧이[고지], 같이[가치],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끝이[끄치], 벼훑이[벼훑치]
미래엔(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끝이[끄치],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불이대[부치대] 별이[벼치], 가을걷이[가을거치]
좋은책신사고(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말이랑[마치랑], 해돋이[해도지] 피붙이[피부치]
지학사(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굳이[구지], 곧이[고지], 같이[가치]
해냄에듀(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굳이[구지], 맏이[마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발이[바치], 불이대[부치대]
천재교육(박영목, 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같이[가치] 붙여[부치], 해돋이[해도지]
비상교육(박영민, 2018)	모음 ‘ㅣ’나 반모음 ‘ㅑ’	같이[가치], 맏이[마지]
창비(2018)	모음 ‘ㅣ’	굳이[구지], 같이[가치], 해돋이[해도지]
비상교육(박안수, 2018)	모음 ‘ㅣ’	같이[가치], 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불이대[부치대]
동아(2018)	모음 ‘ㅣ’	굳이[구지], 같이[가치], 곧이[고지], 해돋이[해도지]
천재교육(이성영, 2018)	‘ㅣ’	굳이[구지], 맏이[마지], 같이[가치] 발이[바치], 굳히대[구치대]

먼저 고등학교 『국어』 11종을 분석해 보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모음 ‘ㅣ’나 반모음 ‘ㅑ’로 설명한 교과서가 7종이고, 모음 ‘ㅣ’로 설명한 교과서가 4종이다²⁾. 그런데 각 교과서에서 다룬 예를 살펴보면, 반모음 ‘ㅑ’와 관련된 예를 제시한 교과서는 천재교육(박영목, 2018) 1종뿐이다.

4종의 교과서는 동화주를 ‘ㅣ’로만 보았기 때문에 반모음 ‘ㅑ’와 관련된 예를 다룰 필요가 없지만, 반모음 ‘ㅑ’를 동화주로 언급한 7종의 교과서들은 당연히 반모음 ‘ㅑ’와 관련된 예를 다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고등학교 『국어』 중 금성 출판사의 교과서는 구개음화 현상을 음운 변동에서 다루지 않고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었다. 이 경우 맞춤법 조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단 1종의 교과서만 해당 예를 다루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천재교육(박영목, 2018)에서 다룬 해당 예는 ‘붙여’이다. 그런데 ‘붙여’는 ‘붙이어’가 축약된 형태로서 이미 구개음화된 발음인 [부치어]를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모음 ‘ㄹ’이 동화주로 기능하는 예로 볼 수 없다(유현경 외 2018:129).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에서 반모음 ‘ㄹ’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 역할을 하는 예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교과서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언어와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2> 『언어와 매체』의 구개음화 동화주와 예시

교과서	동화주	예시
미래엔(2019)	모음 ‘ㅣ’나 반모음 ‘ㄹ’	굳이[구지], 같이[가치]
지학사(2019)	모음 ‘ㅣ’나 반모음 ‘ㄹ’	굳이[구지], 발이[바치] 단히다[다치다], 붙이다[부치다]
천재교육(2019)	모음 ‘ㅣ’나 반모음 ‘ㄹ’	굳이[구지], 같이[가치]
창비(2019)	모음 ‘ㅣ’나 반모음 ‘ㄹ’	굳-+ㅣ-아[구지], 발+ㅣ-아[바치]
비상교육(2019)	모음 ‘ㅣ’	굳이 [구지], 많이 [마지], 해돋이[해도지] 발이 [바치], 같이 [가치], 금불이[금부치]

『언어와 매체』 5종 중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모음 ‘ㅣ’나 반모음 ‘ㄹ’로 설명한 교과서는 4종이고, 모음 ‘ㅣ’로 설명한 교과서는 1종이다. 그러나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ㄹ’을 다룬 교과서 중 해당 예를 다룬 교과서는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ㄹ’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ㄹ’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면 해당 예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구개음화 현상의 형태론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다. 흔히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할 때 모음 ‘ㅣ’나 반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홀이불[흔이불], 길약대[건낙따]와 같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가 실질 형태소의 첫소리일 때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것으로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 따라서 반모음 ‘ㅣ̣’가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기능하는지를 알려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 중에서 앞말의 어말 종성 /ㄷ, ㅌ/를 [ㅈ, ㅊ]로 바꾸는 예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말에는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많지 않은데, 이 중 구개음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조가 ‘요’가 있다. 이 외의 형식 형태소들은 반모음 ‘ㅣ̣’로 시작하더라도 구개음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접미사로 ‘-양(洋), -양(嬢), -여(餘), -연(然), -욕(欲/慾), -용(用), -유(油), -율(律), -율(率)’ 등이 있지만, 이들은 대개 한자어와 결합하거나 한정된 단어 뒤에 결합하여 앞말이 /ㄷ, ㅌ/로 끝나는 고유어 뒤에 결합하는 예를 찾기가 힘들다³⁾. 또한 호격 조사 ‘야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날 환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보조사 ‘요’는 다음과 같이 앞말이 /ㄷ, ㅌ/로 끝나는 고유어 뒤에 자유롭게 결합한다⁴⁾.

- (1) ㄱ. 참외밭에 갈래, 딸기밭에 갈래? / 딸기밭요.
 ㄴ. 그거 네 머리맡에 있잖아. / 네, 머리맡요?
 ㄷ. 공깃밥 먹을래, 돌솥밥 먹을래? / 돌솥요.

3) 국어사전에는 없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바깥용, 밥솥용’과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의 발음은 [바깥충], [밥쏘충]보다는 [바깥농], [밥쑈농]으로 실현되는 듯하다. 이처럼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 찾기가 힘들다.

4) 유현경 외(2018:129)은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ㄷ,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오는 경우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보조사 ‘요’의 존재를 간과한 것이다.

위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론적, 형태론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실제 발음은 화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발음 중에 [딸기바초], [머리마초], [돌소초]라는 구개음화된 발음이 포함되어 있다⁵⁾. 따라서 이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모음 ‘ㄹ’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기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반모음 ‘ㄹ’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설명한 교과서들 중에서 보조사 ‘요’가 결합한 예를 다룬 교과서는 없다. 반모음 ‘ㄹ’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설명하면서도 정작 해당 예를 다루지 않은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는 대부분 음운 변동을 탐구 학습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해당 예시를 먼저 제시한 후 그 예시를 통해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대로라면 반모음 ‘ㄹ’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모음 ‘ㄹ’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밑줄 친 부분의 다양한 발음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발음은 원래 [딸기바초], [머리마초], [돌소초]이지만, 경구개음 /ㄱ, ㄷ/ 뒤에서 단모음화 현상이 일어나 최종 발음은 [딸기바초], [머리마초], [돌소초]가 된다.

4 구개음화

상황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끝이’를 정확하게 발음해 보자.



이슈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면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보자.

단어	발음	음운의 변동
해돋이	[해도지]	ㄷ + ㅣ → ○ + ㅣ
굳이	[]	
미닫이	[]	
끝이	[]	ㅌ + ㅣ → ○ + ㅣ
붙이다	[]	
같이	[]	

‘해돋이[해도지], 끝이[꼬치]’처럼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즈,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그림 1] 미래엔(2018:204)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탐구

미래엔(2018:204)은 ‘해돋이, 굳이, 미닫이, 끝이, 붙이다, 같이’ 등 6개의 예를 제시하고 이 단어들의 발음을 통해 구개음화 현상을 탐구해 보도록 하였다. 상당히 많은 예를 제시했지만, 이 중에는 구개음화의 동화주가 반모음 ‘ㅍ’인 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발음 탐구를 통해 도출해 낸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모음 ‘ㅍ’를 동화주

로 포함하고 있어 탐구의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1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구개음화 현상을 탐구해 보자.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왔다.'라는 문장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때 '같은'과 '같이'를 어떻게 발음했나요?



'같은'은 [가튼]으로, '같이'는 [가치]로 발음했어요. 둘 다 'ㄷ'을 끝소리로 가진 실질 형태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진 것인데, 'ㄷ'과 'ㅈ'으로 다르게 소리 나네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음 탐구 활동을 통해 함께 알아 볼까요?



의문	'같은'은 [가튼]으로, '같이'는 [가치]로 발음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탐구	<p>(1) 다음 단어의 발음을 써 보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알아본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p> <p>같은[]</p> <p>같이[가튼]</p> <p>↓</p> <p>'ㄷ, ㅌ'이 '____, ____'으로 소리 난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p> <p>말이[]</p> <p>같이[]</p> <p>↓</p> <p>'ㄷ, ㅌ'이 '____, ____'으로 소리 난다.</p> </div> </div> <p>(2) 나에 제시된 단어의 음운 변동 환경이 어떤 점에서 공통되는지 찾아 본다.</p> <p>→ 나에 제시된 단어는 모음 '____'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음운이 변동된다.</p>
결과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____'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____, ____'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그림 2] 비상교육(박영민, 2018:169)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탐구

비상교육(박영민, 2018:169)은 ‘말이, 같이’의 발음을 탐구하여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가 모음 ‘ㅣ’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 방안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탐구 학습을 통해 다룬 음운 변동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반모음 ‘ㅚ’를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언급함으로써 탐구 학습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내용이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식 목록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ɨ]’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된소리되기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 ㄷ, ㅌ, ㅈ’이 된소리인 ‘ㄲ, ㄸ, ㅊ, ㅉ’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3] 비상교육(박영민, 2018:169)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

이러한 사례들은 반모음 ‘ㅚ’를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언급한 교과서들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그렇다면 교과서들이 적절한 예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에 반모음 ‘ㅚ’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전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이전 교과서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모음 ‘ㅚ’를 포함하고 있다.

- (2) ㄱ. 입천장소리 아닌 것이 “ㅣ”나 “ㅚ, ㅜ, ㅠ, ㅡ”의 끼침을 받아서 입천장소리로 되는 것을 입천장소리되기(口蓋音化)라 한다. <이

인모(1949:109)>

ㄴ. “다, 더, 도,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 또는 “자, 저, 조, 주, 지……”로 발음한다. 이것을 구개음화(口蓋音化)라고 한다. ……(중략)…… “타, 터, 토, 튜, 티……”도 구개음화하여 “차, 처, 초, 추, 치……”, 또는 “차, 처, 초, 추, 차”로 발음된다. <이승녕(1956:27~28)>

ㄷ. “ㄷ ㅌ”이 그 아래에 오는 “ㅣ(ㅏ ㅓ ㅗ ㅛ ㅠ)”를 닮아서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口蓋音化)[입천장소리되기]라 일컫는다. <김민수 외(1960a:10)>

ㄹ. 구개음화한 경구개음(硬口蓋音) 아닌 자음이 그 밑에 오는 구개모음 “ㅣ”나 혹은 반모음 “ㅣ”를 만나면, 그에 동화되어 경구개음인 “ㅈ, ㅊ”이나 또는 “ㅅ”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김민수 외(1960b:13)>

구개음화의 동화주를 (2ㄱ)에서는 ‘ㅣ’나 ‘ㅏ, ㅓ, ㅗ, ㅛ, ㅠ’로, (2ㄷ)에서는 ‘ㅣ(ㅏ ㅓ ㅗ ㅛ ㅠ)’로 기술하였으며, (2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음절을 ‘다, 더, 도, 듀, 디……’와 ‘타, 터, 토, 튜, 티……’로 언급하였다⁶⁾. 그러다가 (2ㄹ)에서 처음으로 구개음화의 동화주로 반모음 ‘ㅣ’를 직접 명시한다.

이후 국정 교과서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162)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ㅣ’의 지위가 확고해진다.

- (3)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구개음 ‘ㅈ, ㅊ’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구개음

6) 물론 구개음화의 동화주를 ‘ㅣ’로만 한정하여 설명한 교과서들도 많다. (2)의 예들은 구개음화의 동화주를 ‘ㅣ’ 이외의 모음으로까지 확대한 교과서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들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이인모(1949:109)는 ‘다, 더, 도, 듀→자, 저, 조, 주→자, 저, 조, 주’, ‘타, 터, 토, 튜→차, 처, 초, 추→차, 처, 초, 추’의 예를 들었고, 이승녕(1956:28)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던답(田畓)>전답>전답, 지구(地球)>지구, 도수(鳥獸)>조수>조수’, ‘턴디(天地)>천지>천지, 철도(鐵道)>철도>철도, 테조(體操)>체조>체조’ 등의 예를 들었다. 김민수 외(1960a:10)는 ‘불여→뿔여’를, 김민수 외(1960b:13)는 ‘다→자, ‘터→차’를 예로 들었다.

화(口蓋音化)라 한다.

굳 + 이 → 굳이 → 구디 → [구지]

해돋 + 이 → 해돋이 → 해도디 → [해도지]

갈 + 이 → 같이 → 가티 → [가치]

불 + 이 + 다 → 불이다 → 부티다 → [부치다]

닫 + 혀 → 닫혀 → 다터 → [다쳐]

이 책에서는 반모음 ‘ㄹ’이 구개음화의 동화주로 작용하는 예로 ‘닫혀’를 들었다. 이 예는 유기음화 현상까지 동반하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쳐]라는 발음은 [치어]가 줄어든 결과이지 이중 모음 ‘ㅈ’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작용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없다).

이후 6차 문법 교과서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162)에서는 예시와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살짝 바뀐다.

- (4)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ㄹ’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구개음화(口蓋音化)라 한다. 구개음화는 ‘ㅣ’ 때문에 일어나는 동화 현상의 일종이다.

굳 + 이 → 굳이 → 구디 → [구지]

해돋 + 이 → 해돋이 → 해도디 → [해도지]

갈 + 이 → 같이 → 가티 → [가치]

불 + 이 + 다 → 불이다 → 부티다 → [부치다]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하’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도 구개음화하여 ‘ㅊ’이 된다.

달 + 혀 → 달혀 → 다터 → [다쳐] → [다치]
 굳 + 히 + 다 →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이 책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에 여전히 반모음 ‘ㄹ’을 포함하면 서도 ‘달혀’의 예가 유기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개음화가 ‘ㄹ’ 때문에 일어나는 동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설명 하여, 반모음 ‘ㄹ’의 위상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국정 문법 교과서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 소(1996:31)은 (4)에서 구개음화가 ‘ㄹ’ 때문에 일어나는 동화 현상의 일 종이라는 문장을 삭제함으로써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서 반모음 ‘ㄹ’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이후 김인정 체제하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마지막 국정 문법 교과서인 7차 문법 교과서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면서 반모음 ‘ㄹ’가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ㄹ’가 자리를 잡도록 공헌한 국정 문법 교과서는 물론 그 이후 이를 추종한 김인정 교과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예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지금과 같이 설명은 있지만 해당 예시는 없는 모순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Ⅲ. 반모음 ‘ㄹ’의 동화주 여부 판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반모음 ‘ㄹ’가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이다.

(5) 딸기밭요, 머리맡요, 돌솥요, 끝요, 디귤요

위의 표현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발음으로 실현된다⁸⁾.

- (6) ㄱ. [딸기반뇨], [머리만뇨], [돌쏟뇨], [끈뇨], [디근뇨]
 ㄴ. [딸기바초], [머리마초], [돌소초], [끄초]
 ㄷ. [딸기바쇼], [머리마쇼], [돌소쇼], [끄쇼], [디그쇼]

(6ㄱ)은 ㄴ 첨가 현상이 반영된 발음이고, (6ㄴ)은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발음이다⁹⁾. (6ㄷ)은 마찰음화 현상이 반영된 발음인데, 마찰음화 현상은 통시적인 현상으로서 기저형의 어말 종성이 /ㅅ/로 바뀌는 현상이다. (6ㄷ)에서는 마찰음화 현상에 의해 바뀐 기저형의 어말 종성 /ㅅ/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모습을 보인다.

엄밀히 말해 (6ㄱ, ㄴ)과 (6ㄷ)은 기저형이 다르므로 음운 규칙의 공식적인 적용의 측면에서는 이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기저형이 같은 (6ㄱ)과 (6ㄴ)에서는 ㄴ 첨가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오미라 2006).

즉, (5)의 어절들은 ㄴ 첨가 현상의 적용 환경을 충족하면서 한편으로는 구개음화 현상의 적용 환경을 충족한다¹⁰⁾. 따라서 ㄴ 첨가 현상이 일

8) 이론적으로는 (6ㄴ)에서 [디그조]←[디그쵸]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디그조]로 발음하는 경우는 없는 듯하다. 표준 발음법 제16항에서 ‘디근아’의 발음을 [디그시]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9) 보조사 ‘요’가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인 ‘이오’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6ㄴ)의 구개음화된 발음이 보조사 ‘요’가 아닌 이전 단계의 ‘이오’형에서 구개음화된 후 모음이 축약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은 ‘요’가 엄연히 보조사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언 뒤에 ‘요’가 직접 결합하는 과정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조사 ‘이요’를 새롭게 표제어로 등재하기도 했지만, 본고에서 다룬 (6ㄴ)의 정확한 어형은 ‘딸기발이요, 머리발이요, 돌솔이요, 끝이요’가 아니라 ‘딸기발요, 머리발요, 돌솔요, 끝요’이다.

10) 표준 발음법 제29항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녀, 뇨, 뉴]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운론 개론서에서도 ㄴ 첨가 현상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어나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없고,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면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7) 딸기밭이, 머리말이, 돌술이, 끝이

사실 위의 어절들도 이론상으로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구개음화 현상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활성화되었을 당시에 ㄴ 첨가 현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구개음화 현상이 활성화되어 어느 정도 세력을 떨친 이후에 ㄴ 첨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두 현상이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조사 ‘요’가 처음 등장한 20세기 무렵에는 ㄴ 첨가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ㄴ 첨가 현상이 활발하게 세력을 떨치던 시기에 ‘요’라는 형태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해당 구문에서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이 서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5)의 예와 (7)의 예는 음운론적인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동일하게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5)에서는 두 현상이 경쟁 관계를 보이지만, (7)에서는 구개음화 현상만이 일어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본 ‘-용(用)’과 같은 접미사의 사례를 가미하면 양상이 훨씬 복잡해진다.

에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미라(2006)은 보조사 ‘요’가 ㄴ 첨가 현상을 일으키는 예를 제시하면서 ㄴ 첨가 현상의 형태론적인 환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미라(2006)에서는 ‘ㄴ-십입’이라는 용어 사용).

<표 4> 동화주에 따른 ㄴ 첨가와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형태소 동화주 음운 현상	모음 ‘ㅣ’		반모음 ‘ㅣ̣’	
	ㄴ 첨가	구개음화	ㄴ 첨가	구개음화
격조사	×	○	해당 없음	
보조사	×	○	○	○
접미사	×	○	○	×

주격 조사 ‘이’나 보조사 ‘이나, 이야, 접미사 ‘-아’ 등이 결합할 때는 모음 ‘ㅣ’가 어떠한 경우에도든지 구개음화 현상을 일으키지만 ㄴ 첨가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반모음 ‘ㅣ̣’의 경우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미사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 문법의 입장에서는 ‘ㅣ’와 ‘ㅣ̣’계 이중 모음을 모두 동화주로 다룰 만하다¹¹⁾. 비록 ‘ㅣ̣’계 이중 모음의 경우 ㄴ 첨가 현상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ㄴ 첨가 현상에 의해 구개음화 현상이 차단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쟁 관계까지를 포함하여 구개음화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 문법의 처리 방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반모음 ‘ㅣ̣’가 동화주로 기능하는 예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제시하면서도 반모음 ‘ㅣ̣’를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기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방식은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설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에 반모음 ‘ㅣ̣’(본고의 관점에서는 ‘ㅣ̣’계 이중 모음)를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기술하고자 한다면 (5)의 예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11) 반모음 ‘ㅣ̣’라 하지 않고 ‘ㅣ̣’계 이중 모음이라고 한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 문법의 경우 새로운 내용을 다루는 데 매우 보수적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5)의 예를 다룬 적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5)의 예를 다룰 경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ㄴ 첨가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의 경쟁 관계를 언급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ㄴ 첨가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의 경쟁 관계는 음운 현상의 공시성을 넘어 통시적인 측면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 보조사 ‘요’와는 달리 접미사의 경우에는 양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다.

최근까지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이 계속 축소되는 데다가 심화 선택 과목 또한 독서, 매체, 화법 등과 묶이면서 문법의 내용을 심화하기에는 시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심화 선택 과목에서조차도 ㄴ 첨가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의 경쟁 관계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앞으로도 ㄴ 첨가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의 경쟁 관계를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과서에서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의 경쟁 관계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ㅣ’로만 한정하여 기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이 정도의 기술만으로도 치경 자음이 경구개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어 경구개 자음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의 본질은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이 예가 뒷받침되지 않은 실체 없는 설명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교 문법이 기술 문법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문법에서 먼저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의 경쟁 관계에 대한 기술이 일반화된 이후에 학교 문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을 교수 학습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검

인정 체제에서는 당장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먼저 기술 문법이 이러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학교 문법에서도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ㄹ’을 인정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음운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고,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눈다. 이는 학교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모두 이러한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방식은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을 반영한다.

그런데 최근의 논저들은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¹²⁾.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음운 체계의 기술에서는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음운 변동을 다룰 때는 반모음 ‘ㄹ’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보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첨가되는 음소로 보아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학교 문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EBS 교재에서는 꾸준히 국어 음소에 해당하는 요소를 ‘자음, 단모음, 반모음’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어과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¹³⁾.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모음이 국어의 음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반모음이 음소라면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EBS 교재처럼 국어의 음소를 ‘자음, 단모음, 반모음’으로 수정해야 하고, 반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이 음소라면 국어 교과서에서 반모음 ‘ㄹ’을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보거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첨가되는 음소로 보

12) 이에 해당하는 논저로는 신지영·차재은(2003:62), 이진호(2005:26), 양순임(2007:87), 이진호(2014:34), 구본관 외(2015:41), 이문규(2015:61), 유현경 외(2018:48), 이지수·박인규(2018), 한이슬(2021:1), 이영욱(2021) 등이 있다.

13) 학교 문법에서는 ‘음소’라는 용어 대신 ‘음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있던 기존의 기술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반모음의 음소 여부에 대해 몇몇 논저에서 단편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대개 최소 대립쌍의 방법을 사용하여 뚜렷한 결론을 얻기가 어려웠다. 반모음의 음소 여부를 최소 대립쌍의 원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개별 음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음소 단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wən](圓)’과 ‘연[jən](鰲)’의 대립쌍을 분석해 보면, 반모음인 [w]와 [j]의 교체로 인해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중 모음인 [wə]와 [jə]의 교체로 인해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최소 대립쌍이라는 기준으로는 음소 단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다(이동석, 2021).

이에 이동석(2021)은 다음과 같이 이중 모음의 변이음 발음을 통해 반모음의 음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8) 되다, 후퇴, 귀엽다, 박쥐

위의 단어들을 발음해 보면 [we]와 [ö], [wi]와 [ü]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으며, 음이 교체가 되더라도 의미가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e]와 [ö], [wi]와 [ü]가 변이음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장삼식, 1992; 이호영, 1996:57),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교체가 되어도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유 변이에 해당한다(이동석, 2021). 그런데 만약 반모음 [w]가 음소의 자격을 갖는다면 [we]는 복합 음소가 되어 단모음 [ö]와 변이음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이중 모음 [we]를 한 단위로 보아야만 단모음 [ö]와 변이음 관계를 이룰 수 있으므로, 결국 반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이 하나의 음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동석, 2021).

그렇다면 음운 현상을 다루면서 반모음을 동화주로 기술하거나 반모음을 첨가음으로 기술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동화주나 피동화주, 첨가음과 탈락음은 일반적으로 음소 단위로 기술하게 되므로, 반모음을

음소로 볼 수 없다면 반모음을 동화주나 첨가음으로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기술 문법을 중심으로 반모음을 음소로 기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그동안 음운 현상을 설명할 때 마치 반모음을 음소인 것처럼 기술했던 그동안의 관행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반모음 [j]로 기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모음을 음소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we]와 [ö], [wi]와 [ü]의 변이음 관계를 생각하면 반모음은 음소가 될 수 없으므로, 반모음을 음소인 양 오해하도록 하는 기존의 기술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을 구개음화 현상의 예로 다루더라도 이에 대한 기술에서 동화주는 반모음 ‘ㅣ’가 아니라 ‘ㅣ’계 이중 모음이 되어야 한다. ‘ㅣ’계 이중 모음에는 ‘ㅑ, ㅓ, ㅕ, ㅗ, ㅛ’ 등이 포함되므로 이중 모음을 음소의 단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반모음 ‘ㅣ’가 아닌 ‘ㅣ’계 이중 모음이 동화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어과 교과서 중에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ㅣ’와 반모음 ‘ㅣ’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모음 ‘ㅣ’가 동화주로 기능하는 예를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본고는 반모음 ‘ㅣ’가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기능하는 예가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임을 밝히고, 반모음 ‘ㅣ’를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인정한다면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을 관련 예시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여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이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술 문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을 새롭게 구개음화 현상의 예시에 포함시키거나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의 경쟁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기술 문법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학교 문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교수 학습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모음 ‘ㄹ’은 음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로 반모음 ‘ㄹ’을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사 ‘요’가 결합한 구성을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예로 인정한다면, 이때의 동화주는 반모음 ‘ㄹ’가 아니라 ‘ㄹ’계 이중 모음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8일에 접수하여 2022년 9월 25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9월 26일에 게재를 확정함.

참고문헌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 개관, 음운, 형태, 통사 -』, 집문당.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양순임(2007), 『말소리』, 제이앤씨.
- 오미라(2006), ㄴ-삽입 환경의 재검토, 『언어학』 14-3, pp.117-135.
- 유현경 외 9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동석(2021), 국어의 반모음은 음소인가, 『한국어문교육』 35, pp.223-267.
- 이문규(2015),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개정판), 한국문화사.
- 이상신(2014), 국어 음운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pp.207-231.
- 이선웅(2014), 기술문법과 학교문법: 총론, 『국어학』 69, pp.167-205.
- 이영옥(2021), 반모음과 이중모음의 음소 설정 -교육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6, pp.5-49.
- 이지수·박인규(2018), 반모음 교체 현상에 대한 문법 교육적 기술 방안 연구 -문법 교과서 ‘모음 축약 기술에 대하여-, 『국제어문』 78, pp.131-152.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_____(2014), 『국어 음운론 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장삼식(1992), 경상도 방언의 이중모음 간소화 연구, 『논문집』 13, pp.219-235.
- 한이슬(2021), 「학교 문법의 반모음 교육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료>(연도순)

- 이인모(1949),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금릉도서주식회사.
- 이승녕(1956), 『고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a), 『새 중학 문법』, 동아출판사.
- _____(1960b), 『새 고교 문법』, 동아출판사.
-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1991), 『고등 학교 문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 연구소(1996), 『고등 학교 문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 『고등 학교 문법』, (주) 두산.
- 고형진 외 7인(2018), 『고등학교 국어』, 동아출판.

- 류수열 외 10인(2018), 『고등학교 국어』, 금성출판사.
이삼형 외 7인(2018),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최원식 외 19인(2018), 『고등학교 국어』, 창비.
정 민 외 26인(2018), 『고등학교 국어』, 해냄에듀.
박영목 외 11인(2018),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이성영 외 5인(2018), 『고등학교 국어』, 천재교육.
민현식 외 12인(2018), 『고등학교 국어』, 좋은책신사고.
박안수 외 11인(2018),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박영민 외 7인(2018),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
신유식 외 9인(2018),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이삼형 외 5인(2019), 『언어와 매체』, 지학사.
최형용 외 8인(2019), 『언어와 매체』, 창비.
민현식 외 6인(2019),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이관규 외 6인(2019),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방민호 외 5인(2019), 『언어와 매체』, 미래엔.

<국문초록>

학교 문법의 구개음화 동화주에 대한 기술 문제

이 동 석

국어과 교과서 중에는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ㅣ’와 반모음 ‘ㅣ̣’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모음 ‘ㅣ̣’가 동화주로 기능하는 예를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없다. 반모음 ‘ㅣ̣’가 동화주로 기능하는 예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경우이지만, 특이하게도 이때에는 구개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이 경쟁 관계를 이룬다. 기술 문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기술 문법에서 충분히 다룬 이후에 학교 문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반모음 ‘ㅣ̣’는 음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 현상의 동화주를 언급할 때 ‘ㅣ’계 이중 모음이 라고 기술해야 한다.

■ **핵심어** : 구개음화, ㄴ 첨가, 반모음, 이중 모음, 보조사 ‘요’, 자유 변이

<ABSTRACT>

A study on the Explanation of the trigger of palatalization in School Grammar

Lee, Dong-Seok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trigger of palatalization is often described as 'i' and semi-vowel 'j'. However, there is no case in which the semi-vowel 'j' functions as a trigger accurately. An example in which the semivowel 'i' functions as a trigger is when the auxiliary particle 'jo' is combined, but in this case, palatalization and n insertion are competitive. Descriptive grammar can handle these specifics well enough, but school grammar can be a burden to deal with.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these contents in school grammar after sufficiently dealing with related contents in descriptive grammar. On the other hand, since the semivowel 'j' is not a phoneme, it should be described as a 'j' diphthong when referring to the trigger of the palatalization.

▪ **Key words** : palatalization, n insertion, semivowel, diphthong, auxiliary particle 'jo', free variations